

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구수리에서 산출되는 백악기 대구층의 공룡발자국

김남희*, 임성규
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

요 약

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구수리 일대의 백악기 대구층에서는 7개의 층준에서 총 45개의 공룡발자국이 산출되었다. 그 중 용각류가 21개, 조각류가 19개, 불분명한 것이 5개로 나타났다. 용각류 발자국은 5개의 층준에서 산출되었다. 제4층준에서 대형용각류 발자국이 1개가 산출되었고(FL: 112cm, FW: 80cm) 나머지 20개의 발자국은 소형용각류에 해당된다(FL: 17-56cm, FW: 19-42cm). 조각류 발자국은 5개의 층준에서 산출되며 FL은 27-41cm, FW은 23-37cm이다. Lim의 분류에 의하면 용각류 발자국은 Q1형(4개), Q2형(17개)으로 분류되었고, 조각류 발자국은 B1형(4개), B2형(12개), B9형(3개)으로 분류되었다. 보행열을 통해 측정한 공룡들의 보행속도는 3.02-4.46km/h로 나타났으며, 보행형태는 walking gait로 나타났다. 공룡발자국과 건열, 연흔 등의 퇴적구조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당시 이 지역은 수심이 얕은 내륙호의 가장자리에 위치하는 퇴적환경으로 추정된다.

주요어 : 울주군 언양읍 구수리, 공룡발자국, 백악기 대구층, 용각류, 조각류